

4 >> 체육대학 공청회 - 반응 호의적



5 >> 좌담 - 자율운영제 어떻게 보나



학사다이어리 - 2014-1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안내

다전공 신청 및 포기 기간 : 2014. 4. 7(월)~4. 11(금)
다전공 신청 방법 :
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나. 제2전공과 제3전공만에 다전공을 희망하는 전공 선택 후 저장
다전공 승인 및 포기 내역 확인기간 : 2014. 4. 22(화) 이후 예정



벚꽃의 두 얼굴 예상 개화시기보다 한 주 빨리 벚꽃이 활짝 핀 가운데, 학생들이 서울캠퍼스 본관 앞 잔디 위에서 '본관놀이'를 하고 있다. 한편 캠퍼스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Newsmaker
신임 재정사업본부장
김상만 교수



“유·무형 자산 활용해 수익 창출할 것”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서울캠퍼스 베이커리 ‘Cellan’ 부지를 활용하는 커뮤니티 카페나 체육관 건립기금 정도를 제외하면 없는 상태다. 김 본부장은 “현재는 사업 타당성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입찰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5월까지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대학본부는 2014학년도 예산 편성에서 지출액을 확정하고 거기에 수입액을 맞춰 왔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편성하면서 확보되지 않은 수입액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기부금, 연구비 수의 등과 함께 재정사업을 통한 등록금수입 이외의 수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재정사업본부 김상만 본부장은 “인상을 고려했던 등록금이 현재 동결된 상태고, 교육부 역시 대학 정원 감축을 주문하고 있는 시점이라 더 이상 대학이 고정적인 수익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학교가 가진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 정원 감축 등으로 더이상 대학이 고정수입으로는 운영되지 못할 것”

또한 국제캠퍼스 제3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하거나 매각해 200억 원 가량을 확보하는 계획은, 상업·주거시설을 유치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김 본부장은 “다만 매각이 불가능한 학교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대학뿐만 아니라 경희학원 역시 이들 부지에 자본을 투입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에서, 외부 투자를 받아 진행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혁신안들에 우리학교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구성원 소통과 부서 간 공조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재정사업본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SNS 이용률 86%, 커뮤니티도 활성화

2014학번 페이스북 3,192명 가입 ... 최대 소통채널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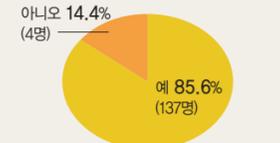
2014학번 SNS 이용 현황 조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2014학번 신입생 중 세종시 출신 학생은 단 5명이라는 SNS글에 댓글이 달린다. ‘세종시 ㅎㅎ 한 명 여기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들이 달린다. ‘첫마를 사세요?’ ‘전 첫마를 보다 더 들어가요 ㅜㅜ 정부청사 옆에... ㅜㅜ’ 누군가는 태그를 단다. ‘너 경희대 5명 중 하나다 ㅋㅋㅋㅋ 씩기방기.’ 우리학교 세종시 출신 2014학번 5명 중 4명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커뮤니티가 뜨겁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의 수요는 개인 정체성 표현 욕구와 이에 적합한 플랫폼의 등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SNS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학교 관련 SNS 커뮤니티에서 얻고 싶은 정보는?



조사대상 : 양 캠퍼스 신입생 160명
조사기간 : 2014년 4월 3~4일

장기 맞물리면서 가속화돼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3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 일인 당 하루 평균 SNS이용 시간은 73.2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자료에서 20대는 다른 세대의 평균 SNS이용률인 23.5%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61%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힘입어 우리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쿠플라자’를 중심으로 한 ‘포털형 커뮤니티’에서 점차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SNS커뮤니티’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다음 카페나 싸이월드 클럽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직해 오던 우리학교 소속 모든 학과를 비롯해, 학생회나 동아리 등도 현재는 대체로 SNS커뮤니티를 통

해 주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맞춤형’ SNS커뮤니티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온비(www.facebook.com/lionbeekhu)’나,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경희대 대나무숲(www.facebook.com/kyunghee_bamboo)’ 등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맞춤형 SNS커뮤니티의 사례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SNS 커뮤니티는 페이스북에 개설돼있는 ‘경희대학교 14학번 모여봐요~(www.facebook.com/groups/khu14)’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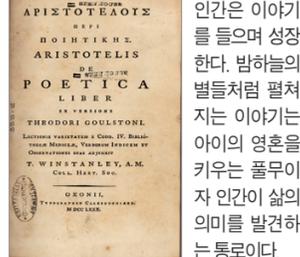
▶3면으로 이어짐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㉑

이윤성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야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이야기 하나만 들려달라고 졸린 눈을 비비며 조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데 하시면서 립을 들인 다음, 그래도 좋다는 아이의 다짐을 받고 나서야 이야기 보따리를 푸신다. “옛날 옛적에 말이다. 호



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옛날 그 옛날” 이렇게 시작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재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야기는 아이의 눈동자를 초롱초롱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은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펼쳐지는 이야기는 아이의 영혼을 키우는 풀무이자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통로이다. 철학자가 왕이 되는 이상 국가를 꿈꿨던 플라톤이 들으면 기겁할 이야기다. “시를 받아들인다면, 법과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

게 된다. 시인과 시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다.” 플라톤은 자신의 책 《공화국》에서 이야기꾼인 시인과 시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플라톤의 이 기획은 물론 성공한 적이 없다. 시인추방론의 무모함을 간파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인간이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점을 그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는 온라인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이제 모바일 페이지로 따로 접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하는 단말기 사이즈에 맞춘 화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 'digest' 로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 소셜 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시선

사설 새롭게 개편된 미래정책원에 거는 기대

지난 2일 약 140명 규모의 직원 인사이동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발전계획안)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개편이 일차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양 캠퍼스 부총장실은 7명에서 2명으로 인력이 축소된 반면, 미래정책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인력이 늘었다.

결국 이번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은 미래정책원이다. 향후 우리학교의 정책심의·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미래정책원은 당장 산적한 문제에 당면해있다. 우리신문이 이번 학기 동안 기획연재를 통해 짚어왔던 자율운영체제에서부터 재원마련을 위한 각종 재정사업이나 앞으로 진행해나갈 발전계획안의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안들은 저마다 복잡하고도 시급한 것들뿐이다.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이목이 미래정책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냉정히 말하자면, 미래정책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사'이기 이전에 '유발자'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학교의 재정불균형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은 '대학평가에 대한 과몰입'일 것이다. 대학평가의 지표들에 맞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덕에 좋은 순위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 수치상의 '허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그간 대학평가의 족쇄를 끊어내지 못한 채 수많은 악수를 뒤 왔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인사발령에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대학본부는 무려 23명의 직원을 평가팀으로 겸직발령을 내려 시도했지만, 이는 결국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 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스무 명이 넘는 인력을 평가팀에 집중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학평가에만 '올-인'하겠다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심지어 대학평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순기능', 즉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 진단의 기능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리학교가 그간의 대학평가에서 줄곧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지표들은 '세입 중 납입금 비중', '세입 중 기부금', '교수당 지적재산권 등록', '취업률' 등이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늘

문제로 지적되기만 했을 뿐 제대로 개선되지는 못해왔다. 도리어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학교의 예체능 전공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등의 핑계나 '세입 중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와 같은 허황된 공약(空約)만 거듭될 뿐이었다.

이런 행보의 결과, 결국 대학의 구성원은 사보오열됐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려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여러 차례의 보직해임이 문제점들을 미봉하며 개선방안을 대실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상을 그렸어야 하는 미래정책원은 당초 기획위원회사무국 시절 명칭 변경과 함께 내세웠던 '장기적 미래상을 그리는 기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상실하고 말았다. '도로 기획조정실, 도로 기획위원회사무국'이라는 비판이 인구에 회자될만한 상황이었다. 미래정책원이 지금까지 보인 이런 행태를 옹호해도 되겠습니까, 몇 차례의 인사이동이나 거버넌스 개편, 수십 차례의 회의 등으로도 우리학교의 당면과제는 제

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전략'이다. 우리가 어떤 대학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곧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방안을 수립해,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를 얻어내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래정책원이 받아든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이 밝혔듯 고정비용이 아닌 사안별 사업신청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대형강의문제에 대해 적합한 강의를 추리고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구 유수의 대학과 같은 '유명강의'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고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의지를 잃지 않고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정책'으로 실현하길 바란다. 빠른 시일내로 구체적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시민인가요?

취재수첩

윤초임
(기자)



지난주 우리학교 뱃나무는 꽃을 막 피워내려는 듯 온통 붉은 빛을 띠더니 이내 흰 팝콘을 틔웠다. 이상고온으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개화한 것이다. 개화에 맞춰 학교의 분위기 또한 새롭게 바뀌었다. 많은 학생들이 본관 계단에 앉아 풍경을 즐기고 더러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또 음식을 시켜 나눠먹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청춘을 부러운 듯 바라보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누군가'가 있다.

서울캠퍼스 본관 계단에 널브러진 쓰레기, 사색의 광장 벤치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도 넘친 숯병들. 이를 바라보는 청소 노동자의 한숨을 당신은 아는가. 학생들은 버릴 공간이 없어 한 쪽에 모아 두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쓰레기통은 캠퍼스 내 여러 장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인 도덕의식을 순간의 편리함과 맞바꾼 학생들의 모습을 '들뜬 분위기'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국제캠퍼스에서는 9명의 학생이 모여 학내에서 벌어지는 버스기사와 학생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ThanKHU'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버스 탑승 시 무임승차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음을 자제하며 하차 시 버스기사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설지 모른다. 버스 예절과 '20대'와의 조합 가운데에 놓인 이유 있는 부끄러움, 위의 내용은 초등학생의 '바른 생활'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닌가.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교과 교재인 《제 2의 탄생》의 책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대학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탁월한 시민, 책임 있는 시민, 따뜻한 시민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을 이수한 학생 모두는 '책임 있는 시민, 따뜻한 시민'의 자세에 부합하는가. 강의실에서 '진정한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면서도, 정작 캠퍼스 내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지 않는 학생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언행불일치'가 아닐까 의심된다.

일각에서는 본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스 예절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소수'의 학생들은 '나 하나쯤은', '아쩔 수 없이'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소수가 한 행위를 본 '다수'의 학생들이 '다들 그렇게 하나까'라고 말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의 모습과 좋은 사회는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다.

정정 보도

지난 주 우리신문 1565호 5면 미래고등교육 포럼 기사에서 시카고 대학 서보영 교수의 이름이 잘못됐기에 이를 서보영 교수로 정정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비아'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 어린이 이부터 학자까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소재다. 가장 간단한 해답은, 사랑을 펼쳐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어사전은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일 것이다.

2년 전 시민교육 수업을 수강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국립국어원에 이의를 제기,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서 남녀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바꾼 바 있다. 이는 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론에도 비중 있게 보도됐다.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도 당당하게 TV에 모습을 드러내고, 몇몇 대학에도 성 소수자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말도 바뀌듯이, 사랑의 정의도 그렇게 바뀌어 가거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필자는 다소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국립국어원의 결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지속적으로 항의 캠페인을 벌였고, 국립국어원은 이런 압박에 못 이겼는지 결국 사랑의 정의를 원상 복구시켰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고대 율법에 지나지 않는 교리를 21세기에 와서 절대선인 양 적용하려 드는 것도 우습지만, 이를 합당한 비판으로 여기고 '가치 지향적인 정의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반복한 국립국어원의 태도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에는,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날 것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는 증세를 '포비아(Phobia)'라고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무서워서 비행기라도 탈라치면 식은땀만 줄줄 흘리는

사람이나, 거미나 지네 같은 벌레를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포비아'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공포증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공포, 혐오인 '호모포비아'나,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배척과 적개심을 뜻하는 '제노포비아'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들어 이런 '포비아'적인 담론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다.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고,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종종 높은 지지를 얻곤 한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다양성,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걸맞는 담론은, 배척과 구분짓기가 아닌 보편성과 포용의 논리여야 한다

한 래퍼는 동성애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노래가 담긴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해 논란이 됐다.

대학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고려대, 서강대 성 소수자 동아리의 홍보 대자 보는 잇따라 누군가의 손에 찢겨져 이러한 시각이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선진국에서 '혐오범죄 방지법'을 제정해 성 소수자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발언이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대비되는 모습이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증오는 그들을 또 다시 전쟁으로 몰아갔다. 인종 간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가 이를 철폐한 후에도 인종 간 갈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점차 다양성,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걸맞는 담론은, 배척과 구분짓기가 아닌 보편성과 포용의 논리여야 한다.



투정 아닌 비판, 사실을 근거로 해야

와글와글 경희

김민정
(기자)



지난달 31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전했다.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기숙사 규제를 폐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총학은 특히 통금에 관련해 학생들이 12시까지 밖에 놀지 못하거나 통금 때문에 오히려 밤을 샌다며, 이것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활수칙에 따르면 우정원과 제

2기숙사는 출입 제한시간, 즉 통금이 없다. 다만 심야 자율출입 통제시간(00:00~05:00)이 있어 출입시 이름과 사유를 적어야 하는 정도이다. 별점 부여 기준표에도 해당사항은 없다. 이에 A 학생은 '통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심야출입통제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최소한의 규율조차 지킬 수 없다면 자취방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규칙은 필요하다. '타당한' 규칙에 대해 '개인의 불편'만을 내세우는 것은 '투정'에 불과하다. 총학은 이런 투정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라고 내세우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직원 인사발령, 거버넌스 개편 ‘신호탄’ 부총장실 대폭 감축, 총장실은 ‘유보’

대규모 직원 인사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지난 2일 양 캠퍼스 140명 가량의 대규모 직원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대학본부의 거버넌스 체계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 캠퍼스 부총장실의 경우 감축을 포함 서울캠퍼스 4명, 국제캠퍼스 3명에서 각각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됐다. 반면 미래정책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었다. 대외협력부총장 산하 기구로 개편된 재정사업본부도 지난 17일 본부장이 임명됐고, 3명의 직원이 배치됐다.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부총장실이 담당하던 자율운영예산 심의 등의 업무가 미래정책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정책원 인력 확대는 재정-행정 발전계획안 입안 당시부터 예고되어 온 것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심의를 단일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총장실은 이

주요 부서 인력 규모 변동

구분	기존	인사발령 이후	변동	
부총장 행정실	서울캠퍼스	4	1	-3명
	국제캠퍼스	3	1	-2명
미래정책원	10	15	+5명	
재정사업본부	0	3	+3명	

준규 전 부총장 해임 이후 이번 인사로 담당 직원이 모두 전출돼 사실상 해체됐다.

또한 문화홍보처가 대외협력처 산하 홍보실로 개편됐고, Space21 건설사업단의 조직을 양 캠퍼스 공동 기구로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거버넌스 개편안의 단기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번 인사를 통해 시행됐다.

인사와 함께 업무 절차도 기존에 행정비효율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사전보고제가 폐지됐고, 결재 절차가 각 캠퍼스 부총장 행정실 중심에서 미래정책원 중심으로 변경됐다. 전체적인 거버넌스의 다운사이징 추세와, 재정 관련 부서에 집중된 인력 배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두된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

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발표된 거버넌스 개편안에 따른 1차적인 인력 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직 개편이 완료되는 데는 이사회와 정관 개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법인 관계자는 “이달 말에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고 여기서 정관 개정이 논의될 것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총장실 인력 조정과 함께 논의된 바 있던 총장실 인력 조정안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애초 부총장실과 함께 총장실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 실무부서에 재배치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부총장실 인력만 감축됐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직원 인사 다음날인 3일 전체 부서 이메일을 통해 “지난 1일 총장과의 면담에서 총장실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조인원 총장을 포함한 총장 행정실 관계자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이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학교-주민 모두 살 수 있는 방안 기대한다”

인터뷰-회기동주민자치위원회 김홍수 위원장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캠퍼스 신축기숙사를 두고 일부 주민과 학교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회기동주민자치위원회 김홍수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잘못된 소문과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빚어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학교주변에서는 3년 전부터 신축기숙사의 수용 인원이 ‘2,000명 규모라더라’, ‘상가가 240개 들어온다고 하더라’ 등과 같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회자되기도 했다. 소문 속 숫자는 줄었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신축기숙사에 대해 판단하는 주민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더라’ 식의 소문도 문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학교도 분명 잘못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오해를 푸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학교와 회기동 사이의 ‘상생’ 관계의 사례를 열거하며 “회기동과 경희대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그동안 회기동 주민과 학교 사이의 입장차를 협의 끝에 해결한 일이 적지 않다. 경희의료원의 주차권물신축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주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야간에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합의에 이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회기동 벽화사업’이나 지역 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 등도 대학과 지역간 협력에 대표적인 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기반에는 ‘공론장’에서 ‘대화’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말한다. “밀실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곳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축기숙사도 논의를 하면 주민과 학교 모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론장에서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적인 대화의 자리로 김 위원장



은 오는 17일 있을 학교-주민 간 공청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신축기숙사에 대한 의견부터 타협할 수 있는 지점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개된 곳에서 논리를 갖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자리다. 때문에 서로 치열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주민과 학교 모두 진전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기동과 경희대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다. 지방에서 올라와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숙사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결과를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성이나 삿대질은 안 된다”며 “주민도 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듣고, 학교 측도 주민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에서 올라와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숙사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청회는 17일 오후 2시 청운관 B1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전망한 것처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율운영예산 5% 삭감 ... 학생회 “사전 협의 없었다”

김주환 기자

대학본부는 지난 19일, 28일 양 캠퍼스에서 미래정책원장 및 단과대학 학장들이 참여한 회의를 거쳐 단과대에 분배되는 자율운영예산을 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과대학별로 수강인원, 인건비 등을 고려한 산출 공식(대학주보 제1561호(2014.03.03.) 5면)을 거쳐 나온 액수의 90%를 배정하는 원칙이 85%를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은 2014학년도에만 적용되며, 행·재정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자율운영예산 산출 공식 자체에도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요소가 들어간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정책원 남순진 원장은 “대학본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확보된 예산만으로 지출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학장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람 회장은 지난 3일 본관 앞에서 예산 공개 등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황’이었다며 “자율운영예산 배정 공식에 대해서는 단과대 행정실, 예산팀 등과 1학기까지 재검토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5% 배정시 2014학년도에 배정된 전체 자율예산 총액 304억 원에서 약 17억 원 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자율운영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총학생회는 실형·실습비와 학생회 자치회비 부문에 있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람(사학 2008) 회장은 “예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삭감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회의 내용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본예산안과 함께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면에서 이어짐

지난 4일 기준으로 3,192명이 가입돼 있는 이 커뮤니티는 페이스북 내의 경희대관련 커뮤니티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이 커뮤니티를 만든 김지호(원자력공학 2014) 군은 “처음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입할 줄 몰랐다”며 “양 캠퍼스 통합으로 운영하고, 가입자가 자신 주변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성장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군의 말처럼 14학년 그룹은 기존의 학과별로 나누어져있던 커뮤니티와 달리 양 캠퍼스 전체의 14학번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의 색깔 자체가 일방적인 ‘정보전달’보다는 새로운 ‘정보공유’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맺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SNS의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SNS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우리학교 2014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응답자 160명 중 절대다수인 137명(85.6%)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로는 117명(73.12%)이 선택한 페이

스북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다른 SNS와 비교해 페이스북은 사진이나 글을 업로드하는데 제한도 없고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표출욕구를 실현하기 가장 수월하다”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이용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NS사용의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인관계’가 86명(6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보획득’이 25명(18.2%)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SNS커뮤니티를 통해 얻고 싶은 정보’는 SNS사용의 주된 목적과 조금 다른 답을 내놨다. 57명(41.6%)이 ‘학사정보’를, 44명(32.1%)이 ‘행사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인의 근황은 17명(12.4%)가 선택했다. 이는 SNS커뮤니티는 단순히 대인관계를 위한 용도를 넘어 정보제공의 플랫폼으로도 가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테면 오늘날의 SNS커뮤니티는 이전 세대의 ‘학교·학과 게시판’의 기능과 ‘인터넷 카페·클럽’의 기능을 한데 아우르며 향유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SNS커뮤니티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 내의 대인관계조직 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의 적절한 양립에 있는 셈이다. 둘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커뮤니티는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결국엔 ‘죽은’ 커뮤니티가 돼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우리학교의 단과대학·학과 학생회 커뮤니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우리학교 단과대학·학과 학생회 페이스북 커뮤니티 중 가입이 승인된 34개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이중 1주일 이상 글이 게재되지 않은 커뮤니티는 총 14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14개 커뮤니티는 모두 직전까지 업데이트된 글이 단순 홍보성 사진이거나 ‘일방적인 통보’성 글들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비단 학생들의 SNS커뮤니티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규모면에서 1만 5,000명을 넘을 만큼 큰 편이다. 특히 SNS의 과급력을 생각할 때 하나의 게시물을 올릴 때 최소 1만 5,000명 이상이 볼 수 있는 거대 창구인 만큼 대학과 구성원간 공론장 역할을 수

행해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공지성 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토론이 발생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대학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정책 방향이 정보제공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구성원의 일상적인 소통의 채널이 SNS로 전환됐고, 그 편리함도 어떤 매체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논쟁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구하는 통로로 활용할 때 대학운영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희 교수는 “기존의 ‘방문객을 기다리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며 “접근이 용이한 SNS커뮤니티가 점점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공론장’으로서의 SNS커뮤니티가 어떻게 ‘질적 성장’을 이룰지는 결국 이용자인 우리학교 구성원의 몫이다.

매그놀리아 인증제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비교과과정 활동, 즉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학생활동을 통해 학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개인역량을 수렴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제도

- 인증 요건**
본문, 과제, 활동, 공모 등으로 구분된 비교과 과정에 대해 영역별 최소 인증점수(5000점)를 달성하고 총 2000점 이상 달성 시 인증!
- 특전**
- 지속적인 개인역량 관리
- 매그놀리아 인증제 인증서 발급
-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활동 지원비 지급(영역별 범위 내 최대 10000원)
- 인정내역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

인증단종종류	학생	주관부서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터미널) 인증	학생	프로그래밍 동아리 및 동아리	동아리장
정보시스템(터미널) 인증	학생	동아리	동아리장
종합정보시스템(터미널) 인증	학생	동아리	동아리장
종합정보시스템(터미널) 인증	학생	동아리	동아리장
- 영역별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그램 제외)**

영역	비교과	인증
인문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증
자연	자연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연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연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증
공학	공학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학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학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증
예술	예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증
체육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증
국제	국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국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국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증

*인증문의: 02)961-0167(영문), 031)201-3066(영문)
*문의문의: 청운관 1층(서울), 학생회관 1층(국제)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영 확대 12시10분 신설...16·17시로 분산

〈서울행〉

〈국제행〉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오는 14일부터 캠퍼스 간 셔틀버스의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올해 캠퍼스 간 셔틀버스 승차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해, 승차인원이 평균 55~60명인 시간대에 노선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로 출발하는 셔틀버스의 경우 기존 12시에 운영하던 노선과 더불어 12시 10분 노선을 신설해 운영한다.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16시 30분에 운영하던 것을, 16시와 17시 두 개로 분산시켜 운행할 계획이다.

국제캠 사무처 총무팀 한상혁 팀장은 “입석 승객이 많아 고속도로에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난달 전수조사를 통해 승차인원을 파악한 후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역과 국제캠 간 통학버스 중 평균 승차 인원이 2명인 4개의 노선은



서울캠 온실 앞에서 오후 6시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폐지된다. 지난해 수원역에 분당선이 개통됨에 따라 영통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어 총무팀은 인원이 적은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 팀장은 “이번 셔틀버스 조정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노선 운영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적은 인원이지만 폐지 예정 노선을 이용하던 학생들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변경내용

국제 → 수원역 통학 시간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고
수원역 → 국제 10:30		폐지
수원역 → 국제 11:00		폐지
국제 → 수원역 16:00		폐지
국제 → 수원역 17:00		폐지

국제 → 서울 셔틀 시간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고
국제 → 서울 12:00	좌동	
	국제 → 서울 12:10	신설
서울 → 국제 16:30 18:00	서울 → 국제 16:00 17:00 18:00	변경

사용 즉시 4시간 단위 '100원' 으로 변경돼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용요금 현실화' 차원

사물함 이용요금 변경

윤초임 기자 chom@khu.ac.kr

【서울】오는 7일부터 중앙도서관(도서관)과 의학도서관·푸른솔문화관의 사물함 이용요금이 변경된다. 도서관 사서와 측은 사물함 대여 사업 유지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물함 이용자는 사용 즉시 4시간마다 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변경 전에는 6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고 추가 4시간마다 100원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1층에 위치한 물품보관함 144칸과 2층의 216칸에서 적용되며, 장기 사물함 이용자를 위해 추가로 마련된

2층의 72칸은 1개월 9,000원(보증금 1,000원)에 사용 가능하다.

이용요금 변경안이 공개되자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100원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과 잠깐만 사용할 때도 항상 100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서관·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나현(화학 2110) 양은 “열람실 내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매점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노트북을 자주 보관했다”며 “짧은 시간동안 사물함을 이용할 때에도 100원씩 지불해야 된다면 부담이 크고, 사물함을 이용하지 않고 책상 위에 물품을 두는 학생들이 많아지

면 사석화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사서과 장소영 과장은 “최초 4시간 동안 10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물함을 열고 닫는 것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로 소프트웨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절감 기조에 따라 졸업생은 도서관 자료 구입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구입비가 전년 대비 40% 가량 감소하면서 모든 신청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료 신청 대상자의 범위 축소에 관한 공지는 이달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실기수업 외 ‘화장·액세서리’ 허용”

체대 공청회, 내규 재정비

김민정 기자

【국제】지난 1일 오후 체육대학(체대) 시청각실에서 ‘ 지켜 나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체대 내 28가지 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공청회는 각 학과의 학년별 대표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체대 내 28가지 규칙’은 체육학과 소속 신입생 개인이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체대 학생회 측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체대 전임 학장이 지난달 18일 신입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각 학과별로 행동강령이 구전돼온 것을 확인했다. (대학주보 제1564호 3면(2014.03.24.))

이날 공청회에서 체대 학생회 유문기(스포츠의학 2008) 회장은 “최근 체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규칙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8가지 규칙의 각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학생회 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신입생과 재학생은 각 규칙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대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 토론회는 각 규칙별로 찬반의견이 팽팽해 논의는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특히 ‘염색, 파마, 셔플렌즈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가한 신입생 A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맞지 않아 발언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학생 B는 “공청회 내내 같은 말만 반복돼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며 “14학번과 13학번의 입장차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대한 각각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난 3일 유 회장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규칙을 단체운동시간에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대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서 해당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액세서리, 화장’ 등은 실기수업 외 시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인사나 자기소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서로에 대한 예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다만 ‘합쇼’체 사용과, 나이보다 학번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 등은 체대의 전통과 관련된 만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SNS를 통해 ‘타대학 체대 학생회와는 달리 논란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개선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회장은 “새로운 체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학생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고 협조해줬으면 한다”며 “학생회는 이 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체대 공청회에는 각 학과 학년별 대표 등 총 60명이 참가했다. 페이스북 등에서는 체대의 공청회를 두고 ‘진전된 모습’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4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4. 7(월) 10:00 ~ 5. 30(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대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 가. 1.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 라. 수정완료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정답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기초 16회)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 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2014-1학기 융합 Clippers 모집안내

경희대학교 융합교육지원센터는 융합교육을 확산시키고, 공유하며, 우리만의 융합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이 넘치는 경희융합 Clippers를 모집 합니다

1. 선발인원 : 서울 0명 / 국제 0명
2.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가. 모집일정 : 2014년 04월 1일 ~ 12일
 - 나. 신청방법 : 자기소개서 작성 후 융합교육지원센터(국제) 직접 방문 제출 or 이메일 접수(onedu@khu.ac.kr)
3. 지원대상 및 전형방법
 - 가. 지원대상 : 경희대 모든 재학생(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2차) 시행
 - 다.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 예정
4. 활동기간 : 2014-1학기(04월 ~ 08월)
5. 활동사항
 - 가. 국내외 융합교육 정보수집
 - 나. 융합교육 뉴스클리핑 편집 및 발간
 - 다. 융합교육지원센터 뉴스레터 제작
 - 라. 월 2회 회의 참석(국제)
6. 지원혜택
 - 가. Clippers 활동지원금 지급
 - 나. 임명장 및 인증서 발급
7. 문의사항
 - 가. 융합교육지원센터 (중앙도서관 3층 301호 ☎ 031-201-2790-1)
 - 나. 홈페이지 : <http://conedu.khu.ac.kr/>
Facebook: https://twitter.com/conedu_khu
Twitter : <https://facebook.com/ConEduKHU>



2014학년도 1학기 본전공(1전공) 선택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본전공(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단위 입학생 중 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본전공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4. 4. 7(월) ~ 4. 11(금)
2. 신청대상
 - 가. 학부(과)단위 입학생 중 세부 전공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생활과학부
 - 예의학부: 전공배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및 전공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호림관광대학(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3. 신청방법
 - 가.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전공신청> [전공신청/포기] 클릭
 - 나. 제1전공란을 선택하여 소속학부내 희망하는 전공 선택 후 저장
 - 다. 제1전공에 해당하는 트랙 신청 가능(2개 트랙 범위)
 - *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졸업 시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가. 본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 할 수 없음
 - 나.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금학기 전공 선택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전공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됨(단, 다전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전공신청을 해야함)

* 본전공 신청 관련 세부 문의 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교무처장

“단과대학 특성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배분돼야”

좌담 - 자율운영제 어떻게 보나

진행·정리 :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대학본부의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단과대학 차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자율운영제, 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구성원이 의문을 품고 있다. 우리신문은 자율운영제 운영 부서인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 단과대학 자율운영협의회 김범진 행정실장,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생명과학대학 박경규 계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랑 회장과 함께 자율운영제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다.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



단과대학 자율운영협의회 김범진 행정실장



생명과학대학 박경규 계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랑 회장

김주환 기자

- 연재순서
- [1]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어제와 오늘
 - [2] 해외취재 - 학부별 자율성 높은 니혼대
 - [3] 국내 대학 자율운영제 현황
 - [4]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미래
 - 1.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율'과 '책임'
 - 2. 자율운영제의 미래를 모색한다

자율운영제의 방향성에 대해 구성원 사이에 의문이 많다. 자율운영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경규 계장 : 자율운영제 실시 이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다. 본래 목표는 단과대학 발전과 학과별 발전인데 그것을 달성했는지 모르겠다. 대학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본다. 자율운영제 정착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어떤 효과를 봤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남순건 원장 : 70여 개의 학과가 특성이다 다르다. 다양한 학과가 존재할 때는 획일적인 제도로서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단지 현재의 자율예산제도가 단과대학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 취지에 비해 결과는 실망스럽다.

김범진 행정실장 : 자율운영제를 통해 단과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행정은 효율성에 근거해야 한다. 단과대학 같은 실무부서는, 권한의 자율하고는 별개다. 사실 업무형태가 돈과 권한을 쫓으니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식인데, 업무가 늘어나니 단과대학 비정규직은 늘어났는데 효과는 없다. 그렇다 보니 얻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얻은 게 별로 없다.

“ 예산 부문은 전략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학과에 투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

Q 자율운영제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나?

박이랑 회장 : 자율운영제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분명 좋은 제도다. 하지만 단과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학본부에 이야기해도 답이 없다. 단과대학마다 편차도 크다. 어느 단과대학은 자율운영예산회의를 하고 어느 단과대학은 서명만 요구한다. 회의자료를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김범진 행정실장 : 과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을 단과대학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젠 단과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까지 권한이 단과대학으로 이양되고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 박자가 안 맞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결과도 빚어졌다. 단과대학의 목소리를 본 부서에서 세밀하게 듣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관리하는 자율운영지원센터 같은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Q 자율운영제의 또 다른 문제는 단과대학의 예산이 부족해 단과대학의 운신의 폭도 좁고, 자율적인 사업 진행도 어렵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경규 계장 : 단과대학 교수님들 불만사항이 실제로 자율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정사업비를 빼면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 단과대학의 목소리를 듣고 관리하는 자율운영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

다. 자율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대부분의 예산이 고정사업비로 가버렸다.

남순건 원장 : 고정비용화 된 것은 중앙에서 자율운영예산을 썼을 때 편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배분이 안전한 방식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예산 부문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고정사업비가 아닌 사안별 사업신청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전략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학과에 투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Q 미국의 RCM(Responsible Management Center)이나 니혼대의 사례를 통한 단과대학별 등록금 책정이나 새로운 제도는 어떤가?

남순건 원장 : 단과대학별 교육비가 정확히 산정된다고 하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책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박경규 계장 : 미국식의 경쟁적 자율운영 논리에는 도태라는 의미도 숨어있다. 경쟁에 떨어지는 학과는 폐지된다든지 교원 임용 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학교의 장학이념과 운영 가치에 충돌한다. 우리학교의 상황에 맞는 변형된 자율운영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분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율적,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본부와 조정을 통해 예산을 받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방식

“ 미국의 경쟁적 자율운영과는 다른 우리학교 상황에 맞는 변형된 자율운영제를 만들어야 한다 ”

의 새로운 자율운영이 필요하다.

Q 자율운영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때 주요점을 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경규 계장 : 업무에 관해 예를 들어 보자면, 단과대학별로 학사제도나 교수 업적평가 등 특성이 다른 연구업적제도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자율성을 이유로 무작정 내려온 잡무는 중앙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산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대신 단과대학별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는 거다. 학생회·학과·교수님들이 내부 토의를 통해 '이런 사업을 하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사안별로 취사선택해서 지원해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김범진 행정실장 : 운영비 성격, 실습비 성격의 예산은 단과대학에 둔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 예를 들면 단과대학별로 국제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본부에 신청을 하고 검토 후에 단과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본부에서 지원받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남순건 원장 : 건물 관리비, 인프라 구축 등은 중앙관리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 부분도 많다. 단과대학에서 모든 업무를 끌어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예산 제도의 경우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학장의 책임성, 단과대학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 교수·직원·학생들이 동등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

복합적인 지표를 통해 역동성 있게 단과대학에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대학사회에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은 있어야 한다.

Q 앞으로 자율운영제도를 개선하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김범진 행정실장 : 정책이란 것은 혁명처럼 한 번에 확 바뀌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생기면 환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처럼 단과대학의 문제도 단과대학에 물어보고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실무부서에 있다. 실무부서와 소통한 다음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박이랑 회장 :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분위기가 잘 이뤄지는 단과대학도 있다. 하지만 과 학생회장들은 교수님들과 친밀하다보니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직접 제안을 못하다보니 결국엔 문제가 총학생회로 넘어 오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수·직원·학생들이 동등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자율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소통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남순건 원장 : 자율예산 개선안에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직 연구보고서 단계다.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찬찬히 검토해 볼 예정이다. 조직개편과 함께 그런 제안을 해 보겠다.

미디어센터 칼럼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청춘·영화·음악·경희의 역사·유물 등의 다양한 소재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필진의 '프리미엄 칼럼'은 웹 홈페이지 media.khu.ac.kr 또는 모바일페이지 media.khu.ac.kr/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진의 '이 거지같은 청춘'

미디어센터의 간판 칼럼니스트 최상진 교수는 국어국문학과와 큰 어른으로서, 제자들의 고민은 물론 연애사까지 두루 꿰뚫고 있다.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청춘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연재 중이다.



안승범의 '작은 영화로 본 큰 세상'

우리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연구원이자 문화공간 '칼리칼라'의 대표인 필자는 이외에도 '명함'이 많다. 시인이자 영화평론가로서 경희 구성원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가득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동희의 'Rock & 樂'

10대 때부터 밴드활동에 심취해 온, 락스 피릿의 소유자. 한 분야에 끊임없이 파고 들어 웅만한 전문가 저리가라 하는 필자가 락의 음악성에 대한 연재를 하고있다.



김용은의 '중앙박물관 유물 산책'

우리학교 중앙박물관 직원인 필자는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유물의 가치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의 글을 읽으며 유물 산책을 함께 떠나보시길.



남기원의 '숨은 역사를 찾아서'

경희기록관에서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 필자는, 빛바랜 자료 속에서 경희가 지나온 길을 더듬어 오늘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숨은 역사' 속 경희의 이야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조은아의 '강의 일기'

피아니스트이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객원 교수인 필자는 그간 음악을 매개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 '경계넘기'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그 너머의 이해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의 강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칼럼



류재환
동서대학교학원 교수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장을 맡고 있는 류재환 교수는 우리나라 ‘통합의학’ 분야의 전문가다. 한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리학교에 있어 동·서 의학의 통합은 잠재력 있는 연구 분야다. 이번 호에는 동·서 의학의 개념을 통합한 통합의학이 세계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 호에서는 이 같은 세계 의료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제3의학’의 미래 ③

연재순서

1회: 제3의학(통합의학)의 개요

2회: 현 의료상황 및 향후 지향점

3회: 제3의학(통합의학)을 통한 의료계 새로운 패러다임

4회: 현 경희대·의료원 상황 및 발전방향

미국·일본, 통합의학 새 패러다임으로 부각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서구 의학에 동양 전통의학을 접목시킨 통합의학이 새로운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미국의 ‘포괄적 의학협회’에 따르면 동·서양 의학을 통합한 ‘통합의료센터’는 미국 내 대형 종합병원에 10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2013년 기준 48곳이 운영되고 있다. 간략히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하와이 주립의대는 의학 영양학과 폴리네시아 의학, 중국 한의학 등에 대한 통합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고, 텍사스 주립의대는 명상학을 통합 의학에 접목시켜 연구하고 있다. 또 하버드 의대 부속 메스제너럴 병원(MGH)의 통증의학과에서는 통증 및 퇴행성 골관절 질환에 중국 전통 침구학을 접목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침의학은 의료보험 혜택까지 부여돼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브링엄 여성병원 내 오셔(Osher) 통합의료센터에서는 통합의료에 필요한 환자들의 개인별 상황을 의사와 중국 전통의사(TCM), 영양사, 요가 치료사, 침 치료사,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상호 교류해 환자가 현재 필요로 하는 적절한 치료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MD 앤더슨 암센터, 메이오 클리닉, 베스 이스라엘 의학센터 등의 통합의료센터에서도 한의학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MD 앤더슨 암센터, 한의학 활용 ‘통합의료’

더불어 인체의 노화에 대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통합의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영역은 크게 외부 연구 프로그램과 내부 연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외부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노화 생리’, 즉 노화 과정의 생리학적 기전, 생명 연장 및 건강 유지에 대한 연구와 ‘행동 사회학적 측면으로 개인과 사회적 수준에서 노화 과정의 기초사회행동 연구’, ‘신경과학 및 신경 질환 연구에서 건강 상태 및 질환 상태에서 노인의 신경체계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노인병학

및 임상 노인학에서 노인 건강 및 질환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연구 프로그램으로는 노화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로 학문적 기반 연구를 통한 ‘노화 관련 의학적 연구와 임상 연구’, ‘생리학적 변화 이해와 환경적 스트레스 적응 능력 연구’, ‘연령과 관련된 질환의 병태 생리학적 이해 연구’, ‘노인의 7대 질환인 알츠하이머질 환, 파킨슨병, 뇌졸중, 죽상경화증, 골관절염, 당뇨, 암질환 및 노화 결정 요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연구 프로그램에는 통합의학의 개념이 긴밀히 녹아들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역시 노인병과 장수과학 분야에서 통합의학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 국립 장수과학연구소의 병원 및 부속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통합의학은, 연구된 결과를 실제 임상에 직접 적용하여 거시적 도출된 결과물을 노인병학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노화 기전부’, ‘노화 제어부’, ‘뇌과학부자 영상부’, ‘알츠하이머병 연구부’, ‘생물학적 치매 연구부’, ‘근골격계 질환연구’, ‘재생의학연구’, ‘역학 연구부’, ‘기능 활동부’, ‘진단 장비 연구개발부’, ‘노인정책부’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 역시 통합의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상기해보면, 오늘날 통합의학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통합의학을 통한 포괄적인 환자개로의 접근은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향후 의학으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기 원하는 고령인구의 수요에 맞춘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의학적 지식들-서양의학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학이 구축해온 의학적 노하우들-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점점 큰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흐름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국내의 의료상황은 현재만 하더라도 병원 평준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의 다양화와 차별화가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통합 의학적 의료방식의 적용은 국내 의료계의 현실에 녹아들 수 있다.

우리학교가 수십 년 간 구축해온 한국

전통 의학(한의학) 방면에서의 강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지점 역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학교의 한의학은 한국 전통의학 기반의 통합 의학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탁월하게 선도해나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미 의료계에 어느 정도 도입되고 있는 보완 대체의학적 개념, 혹은 의학 영양학적 부분, 그리고 명상학적 방식 등과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통합의학 개념을 구현하고 다듬어가는 데 창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의료적 접근법을 임상 의료 차원까지 도입해서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한의학 통합의학 선도할 인프라

필자는 2년 전 일본 나고야에 소재한 국립 장수과학연구소 및 부속병원을 방문해서 지역사회에 각종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본 경험이 있다. 국립 병원임에도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인 토요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병원 운영 및 여러 종류의 운동법, 재활훈련법, 레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풍경을 보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같은 우수 기업의 사회 공헌과 지속적인 정부 시책의 조화는 우리 의료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본다. 비단 일본 외에도 미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최근의 의학 연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계 역시 그간 해오던 방식의 의료 패러다임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도모하는 효과적이고 의료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나아가야 한다. 전술한 바 우리학교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교에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통합의학을 통한 포괄적인 환자개로의 접근은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양리포트⑥ 공학과 윤리

엔지니어는 왜 윤리를 배워야 하는가



예철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칸트(Immanuel Kant)에 따르면 윤리학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는 학문이다. ‘공학과 윤리’는 미래의 엔지니어에게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교과이다.

‘공학과 윤리’ 과목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 교육과정 중에서 배분이수교과의 ‘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 영역에 속해 있다. ‘공학과 윤리’의 특징은 전공교과는 아니지만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영역의 ‘공학과 경영’과 더불어 공학 교육인증(ABEEK)을 위한 필수선택 교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하는 공과대학이나 전자정보대학 소속 학생들이 주요 수강생이며 생명과학대학의 유전공학과 학생들도 수강하고 있다.

이 교과목의 목표는 미래의 엔지니어가 될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윤리의식을 함양해, 졸업 후 실제 공학 현장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에게도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미국의 첼린저호 폭발 사건, 옛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엔지니어들에게 윤리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학과 윤리’ 교과에서는 윤리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실제 공학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윤리를 배운다. 먼저 윤리학의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목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발시키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

적주의와 법칙주의, 자연주의와 직각설, 그리고 도덕 실재론과 도덕 상대주의를 탐구한다. 이어서 공학윤리의 의의를 공부하면서 도덕적 쟁점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인 도덕적 자율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공학 윤리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결과주의적 해결책, 규칙주의적 해결책, 그리고 선긋기 기법(Line Drawing Method)을 배우게 되는데, 특히 선긋기 기법은 일상 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곤란할 때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또한 ‘공학과 윤리’에서는 공학윤리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의료윤리, 생태윤리, 정보윤리, 공직윤리 등을 배워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를 고민한다.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모두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팀별로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엔지니어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주제가 제시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근거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찾아서 제시하도록 유도한

다. 예를 들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 예방 시스템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때 엔지니어로서 당신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다. 학기 초에는 토론이 진행될 때 담당 교수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를 문의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와 같이 단순하게 의견이 결정되는 내용도 지양한다. 따라서 토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분방하게 토론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각 팀이 토론 내용을 발표할 때는 담당 교수가 코멘트와 더불어 반대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를 하도록 장려한다. 이렇게 매주 토론을 제대로 진행한 학생들은 학기말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 본인의 의견을 정교화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공학과 윤리’를 수강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스스로를 끊임 없이 계발시키는 창의적인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란다.

[국감]유기흥 의원 '대학 부정비리 근절방안 시급'

국립대 512건 적발, 85명 징계, 49억원 환수

"사학 비리 교감 물러가라" 전교조 부산지부 농성돌입

막가는 사학재단...교사 채용비리에 장학회 공금 횡령

"사립대 법인 10곳 중 7곳 친·인척 차지"

[국감&팩트]사립대 대물림도 심각... "친·인척 비율 제한해야"

사학 비리는 특정 시기나 정권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사학개혁, 응답 없는 박근혜 정부

대학을 생각한다 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KHEI) 연구원



사학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검찰은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건국대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미래대 교수회도 최근 총장 퇴진과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고, 제주한라대 노동조합도 지난 2월 학교법인과 대학 비리를 감사해달라고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수원대는 교비회계 전용 등 학교 비리를 제기했던 교수 4명을 파면해 해당 교수들과 동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학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 등이 부정·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대학이 2010년 5건에 불과하다가, 2011년 16건, 2012년 17건, 2013년 26건 등으로 급증했다. 앞서 언급된 대학 사례에서도 보듯이 올해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 부정·비리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조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 정상화'를 국정 모토의 하나로 삼고 있

다. 이제까지 적발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학 부정·비리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학 부정·비리 해소나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 및 전문대 육성, 대학 재정 GDP대비 1% 수준 확대 등 몇 가지 대학 관련 공

사학·부정 비리는 증가 정부는 '모르쇠' 일관

약을 내놓았지만,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에 그쳤을 뿐이다.

사학 부정·비리 문제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모습은 대통령의 과거 경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 4월~11월 영남대 법인이사장을 맡았고, 학내 민주화 운동 등으로 물러날 때인 1989년 2월까지 법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영남대 이사 7명 중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목표는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고 건전한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쫓돌 집

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학 부정·비리 해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구조개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 등에 선정된 대학은 퇴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부정·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학은 퇴출시키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퇴출 대학이 법인을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대학 설립 이후 줄곧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했던 사학 관계자들이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별로 손해 볼 것 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 해당 대학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모교를 잃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사학비리 몇개 대학만의 문제 아냐

더 심각한 문제는 사학 부정·비리가 퇴출 대상이 될 몇 개의 대학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학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 감사조차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아직까지 상당수고, 2005년부터 대학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도입한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도 역

시 영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 감시나 견제 기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는 없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 분쟁 또는 회계분쟁 등으로 대학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때,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 권한을 침해했을 때에 교육부가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신설했다. 당시 이 조항 신설과 관련, 사학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까지의 사학은 많은 분쟁과 부정과 잡음이 그치지 않아 번번이 학사행정의 건전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터로 행정상의 최소한 시정을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된 것이다."(동아일보 1964년 11월 6일자)

물론 박정희대통령이 당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학 부정·비리를 나름대로 엄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대통령이 '사학은 많은 분쟁과 부정과 잡음이 그치지 않아 번번이 학사행정의 건전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언급했던 부분이다. 5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학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듯싶다.

참여마당

유익성
(경영학 2011)



'강건너 불구경' 그만 자신있게 목소리 내야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봄이 찾아와 꽃이 피는 것은,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일이다. 자연의 이치처럼, 사회에서도 어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바로 사회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낀다. 아마도 사회 문제에 자주 목소리를 내면 늘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혹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서 일지도 모른다. 이런 현상은 취업 불황인 지금 스스로를 호감가는 일꾼, 순종적이고 밝은 모습만 지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SNS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SNS는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SNS에서 통용되는 정보 중에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단편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고 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근거와 내용이 결핍된 단편적인 정보는 대중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과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 편 가르기 식 싸움을 야기시킨다.

올바른 사회문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부르기 쉬운 단편적 정보가 아닌, 다각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며, 모든 사회문제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인지하고 양방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만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인 불만표시가 아닌 신성한 권리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쟁점에 대해 자신있게 생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한쪽 날개로만 날아오르는 새는 없다. 새도 좌우의 날개로 균형을 잡아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 또한 좌우의 반목이 아닌 조화가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오른쪽 날개인 지 왼쪽 날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는 능동적이고 힘찬 날갯짓이 필요한 것이지 특정 날개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철 후보자의 공약에만 관심을 갖고 투표 하는 것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국한시켰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사회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며 힘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회가 가진 문제에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일관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꿈의 무대가 돼야 할 사회를 그저 남 일 이라고 생각하는 어설픈 인재를 사회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쟁점에 대해 자신있게 생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1면에서 이어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문학이 인간에게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낸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결된 행동의 모방일 뿐 아니라,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모방"인 비극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즉, 인간은 행동의 모방을 통해 객관화의 지혜를 배우는 동시에 삶에 주어지는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한다. 비극에는 '행동의 모방'만이 아니라 세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건의 '필연성, 개연성'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허구이지만 현실에 비추어 그럴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개연성을 얻기 위해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유기적 통일성이다. 이 유기적 통일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플롯 짜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훌륭한

플롯은 다음과 같이 짜여야 한다.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을 가진 하나의 전체적이고 완결된 행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시작이란 그 앞에 아무 것도 없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따라 나와야 하며, 중간이란 그 앞과 뒤에 이야기가 있으며, 끝이란 그 앞에 이야기가 있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플롯 짜기를 통한 유기적 통일성의 여부가 비극의 형식적 탁월성을 결정한다. 이런 유기적 통일성에 따라 짜진 비극이 가장 훌륭한 비극이다. 그는 최고의 비극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꼽는다. 《시학》은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빼어난 것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려준다. 할머니의 반진고리에 바늘, 실, 골무, 자 등 한 벌의 옷을 짓기 위한 바느질 도구들이 가득하듯, 이야기꾼의 반진고리인 《시학》에는 한 편의 이야기를 짜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빼곡하다. 하지만



《시학》은 문학이 인간에게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낸다

《시학》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의미가 이야기 속에 깃들여 있다는 소중한 지혜다.

《시학》을 문학 창작을 위한 지침서로만 간주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시학》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의미가 이야기 속에 있다는 소중한 지혜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역사를 만들어 온 동물이다.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이야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어떻게?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어보아 한다.

2014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모집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일시
정원내 (내국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4. 4. 28.(월) 10:00 ~ 5. 23.(금) 17:00 까지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4. 5. 31. (토) 10:00 예정 (추후 재공지)
	합격자 발표	2014. 6. 20. (금) 16:00 예정
정원외 (외국인)	합격자 등록	2014. 7. 1. (화) ~ 7. 4. (금) 16:00 까지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4. 4. 7. (월) 10:00 ~ 4. 25. (금) 17:00 까지
	합격자 발표	2014. 6. 13. (금) 16: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4. 7. 1. (화) ~ 7. 4. (금)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모집요강에 공지합니다.
* 모집요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4월 초 이후 공지 예정이오니, 원자께서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 문화

농구부 건국대 원정에서 승리 골밑 장악한 우띠롱 선수 '활약'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유기웅 객원기자 kiwoongyoo@nate.com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1일 펼쳐진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건국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밑을 지배한 우띠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활약으로 74-63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 날 승리로 농구부는 리그 2승 1패를 기록하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우리학교는 경기 시작과 함께 유기적인 패스 연결을 통해 최장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3점 슈트로 주도권을 잡았다. 이 후에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속구 득점과 우띠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 연이어 터지며 점수를 차곡차곡 올렸다. 이에 건국대도 김진우 선수를 이용한 속공을 시도하며 추격하기 시작했고, 우리학교는 1쿼터를 14-11로 3점 앞선 채 마

무리했다. 2쿼터에도 경기는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학교는 여러 가지 공격패턴으로 건국대와의 점수 차를 벌려놨지만, 건국대는 유영환 선수를 앞세워 다시 점수차를 좁혔다. 초반에 벌린 점수 차를 지키지 못한 우리학교는 34-31로 또 다시 3점 차로 2쿼터를 마쳤다.

3쿼터, 우리학교는 건국대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우띠롱 선수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우리학교는 골밑을 지배하며 계속해서 득점에 성공했고, 건국대는 우띠롱 선수를 막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학교는 10점 차까지 달아났지만 이번에는 건국대 장문호 선수와 이승환 선수의 3점 슈트가 터지면서 3쿼터 종료 1분을 남기고 역전을 당하며 경기는 어렵게 흘러갔다.

골밑을 공략한 우리학교와 외곽 슈트로 승부를 건 건국대의 승부는 4쿼터에 결정됐다. 건국대는 4쿼터 들어서 체력

저하로 슈트의 정확성이 떨어졌고, 이 틈을 타 우리학교는 우띠롱 선수와 배수용(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계속해서 펼쳤고 건국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

결국 우리학교는 74-63으로 건국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지난 한양대와의 경기에 이어 대학농구리그 2연승을 달렸다. 풀 타임으로 40분동안 코트를 누비며 활약한 최장진 선수는 "3쿼터에 건국대의 3점 슈트에 고전했지만 4쿼터에 승부를 걸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명지대와의 홈경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농구부는 오는 7일 오후 5시 우리학교 국제캠퍼스 농구장에서 명지대와의 리그 네 번째 경기를 갖는다. 대학농구리그를 다시 한 번 평정하기 위해 오늘도 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구부의 승전보를 기대한다.



태권도부 제공

태권도부 선발전서 메달 12개

세계대학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김지은 객원기자 jeunkay@naver.com

우리학교 태권도부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 13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과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부가 거의 모든 체급의 메달을 싹쓸이하며 우리학교가 명실상부 대학 태권도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겨루기 부문 남자대학부 +74kg급에서는 김민준(태권도학 2013)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김 선수는 고등학교 때 촉망받는 에이스였으나 대학 입학 후 긴 재활 기간과 슬럼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메달이 절실했다. 그는 "3위라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은 매우 좋다"며 "이제부터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46kg급에서 조희은(태권도학 2014) 선수가 최희정(태권도학 2011) 선수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53kg급에서는 1,2,3위를 모두 우리학교가 가져오는 쾌거를 기록

했다. 임하경, 박현아(이하 태권도학 2013), 하민아(태권도학 2014)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57kg급에서는 유경현(태권도학 2014) 선수가 최윤아(태권도학 2011)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나란히 차지했으며, +62kg급에서는 장혜진(태권도학 2011) 선수가 3위를, -67kg급에서는 장희영(태권도학 2013) 선수가 김신비(태권도학 2014) 선수가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다. 또한 +73kg급에서는 김빛나(태권도학 2011)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각 체급에서 1위를 차지한 조희은, 임하경, 장희영, 김빛나 선수와 품새 남자부에서 2위를 기록한 최효석(태권도학 2013) 선수, 품새 여자부에서 4위를 기록한 김한별(태권도학 2012) 선수와 5위를 기록한 김정훈(태권도학 2014) 선수 등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6월 중국 내몽고에서 열리는 '제13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태권도 여자부 주장 최희정(태권도학 2011) 선수는 "운동시간 외적으로도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팀 미팅을 자주 했다"며 "이를 통해 목표를 뚜렷이 하고 다들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했던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는 '자기 확산' 부터... 상황극도 흥미진진

새내기를 위한 연애포럼

노현정 객원기자 hottie101@khu.ac.kr

【서울】 지난 1일 대한민국 최초 연애강사이자,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표 연애코치인 이명길 코치의 연애포럼이 청운관에서 열렸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강연은 '새내기를 위한 연애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남녀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 데이트 신청 방법, 긴 연애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연애 관련 퀴즈를 풀며 시작된 특강은 남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이 코치는 비유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이성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명확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들에게 "남자의 무기는 도끼이며 도끼는 될 때까지 찍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여자의 무기는 톱이며 도끼처럼 찍지 말고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한편 "만약 당신이 이성이라면 당신과 연애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코치는 강연 도중 객석에 있던 두 남녀 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의 상황극을 부탁했다. 상황극을 연출해준 학생에게는 서로의 번호교환과 함께 영화 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여 청중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효율적인 데이트 신청 방법에 대한 분석도 함께했다. 이 코치는 "데이트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데이트 신청은 사람이 가장 안정을 되찾는 시간인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트 신청을 할 때에도 확산을 갖고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기 확산은 타인을 설득하는 첫 번째 요소"라며 "만약 당신이 이성이라면 당신과 연애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코치는 강연 도중 객석에 있던 두 남녀 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의 상황극을 부탁했다. 상황극을 연출해준 학생에게는 서로의 번호교환과 함께 영화 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여 청중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연인관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며 "연애가 중·후반기로 흘러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게 투자해 보다 맛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연애코치'를 직접 직업사전에 등재시켜 대한민국 연애코치 1호가 된 그는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 수 있으니 틀에 박힌 직업만을 고수하지 않길 바란다"며 연애 외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주의 스포츠



4월 7일
(2014 대학농구리그)
경희대 vs 명지대
오후 5시(국제캠퍼스 농구장)

4월 10일
(2014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경희대 vs 연세대
오전 12시(군산 야구장)

4월 8일
(2014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경희대 vs 동의대
오전 12시(군산 야구장)

4월 11일
(2014 U-리그)
경희대 vs 고려대
오후 3시(용인 축구센터)

4월 둘째 주(4.7~4.1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모집부서	일시	장소
공군장교 채용연대	조종장학생, 예비장교후보생, 사관후보생	4.10 (목) 09:00~16:00	청운관 1층 상강실
김영장 법률사무소 채용연대	비서, 빌링, 패러리걸, 업무지원(아케팅)	4.10 (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강실
동부화재 채용연대 (2014 상반기 공채)	영업, 보상관리, 인사팀, U/W, 상품업무, 자산운용, 경영지원	4.10 (목) 13:00~17:00	청운관 1층 상강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입장권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특강명	진행자	일시	장소	비고
자기소개서 특강 (4차)	이희성 객원교수	4.7(월) 11:30~13:20	네오관 103호	5차) 4.14(월)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후 별도의 승인연락 없이 참석
 ● 특강 관련 출석입장권 발급: 특강 종료 후 현장에서 발급, 배부

3.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상담유형	컨설팅팀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팅팀 4명	월~금 (각 컨설팅팀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방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생화/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상담	이종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 김윤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팀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 신청서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상담 당일 날 최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4. 온라인 취업순서서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외)
 ● 구성: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서류전형(기업분석자료, 합격자 자기소개서), 면접자료, 동영상 강의 등
 ● 이용방법: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job.khu.ac.kr) 로그인-좌측 추천프로그램 메뉴-온라인 취업순서서 선택
 5. 추천채용

회사명	추천인원	모집부서	마감기한
스프링클러코리아	0명	준법실팀	4.8(화) 9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ob@khu.ac.kr)
 ●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추천채용공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4학년도 1학기 교수법 특강 안내

일정	장소	주제	강사
4월 4일 23일(수) 12:00~13:30	법과대학 401호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수업사례분석	문혜진교수 (이화여대)
5월 5일 13일(화) 12:00~13:30	오비스홀 202호	수업에서의 프레지 활용하기	이도원 대표 (인브리프 커뮤니케이션)
6월 6일 5일(목) 12:00~13:30	오비스홀 201호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효율적인 수업방법	이상훈 (클 디자인)

※ 상기 일정 및 주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무용학부관 101호, 961-0901~2)

2014학년도 1학기 학습법 특강 안내

일정	장소	주제	강사(안)
4월 4일 8일(화) 15:00~17:00	오비스홀 111호	전달 메시지에 힘을 더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배준오 (마이코스프트MVP)
5월 5일 13일(화) 13:30~15:30	오비스홀 205호	글쓰기를 위한 주체적 독서법	김민영 (이행목한상상 이사)
5월 5일 말	미정	인포그래픽 활용	미정
6월 6일 초	미정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미정

※ 상기 일정 및 주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무용학부관 101호, 961-0901~2)

서울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킨푸드 '면접의 여왕' 메이크업 스튜디오

호감 가는 첫인상 '핑크빛 로즈 메이크업' 완성하고, 증명사진 촬영!

일시: 2014년 4월 15일(화) ~ 17일(목) * 3일간
 시간: 10:00 ~ 17:00
 장소: 학생회관 입구
 참여 방법: 사전 예약 (새내기 메이크업은 현장 접수 가능)
 접수처: 학생회관 1F 취업진로처

EVENT 1

면접 / 새내기 메이크업 & 이력서 사진 촬영

EVENT 2

우리학과 응원전

EVENT 3

우정 사진 촬영